

건강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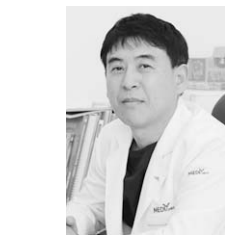
알레르기 질환의 대표 주자,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란 말은 이제 병원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단어가 되었다. 최근 일련의 역학연구들을 참고하면 알레르기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기관지 천식은 나라가 잘살게 될수록 그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어 '선진국 병'이라고 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
천식이란 기관지의 알레르기 염증 반응 때문에 발생하는 알레르기 질환으로 폐 속에 있는 기관지가 아주 예민해지고, 때때로 기관지가 좁아져서 숨이 차고 가랑기랑하는 숨소리가 들리면서 기침을 심하게 하는 증상을 나타낸다.

알레르기 질환에는 기관지 천식이 대표적이며, 그밖에 알레르기 폐질환, 알레르기 비염, 약물 알레르기, 곤충 등에 의한 알레르기, 급·만성 두드러기, 음식물 알레르기, 그리고 가장 심한 표현형인 아나필락시스 등이 있다. 알레르기 질환들은 외부로부터의 원인물질(항원 또는 알레르겐)에 노출되었을 때 생기는 염증반응에 의한 질환으로, 여러 가지 알레르기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환자들이 의외로 많으며, 이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

▲천식을 일으키는 원인
천식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합쳐져서 생기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이다. 즉,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알레르기 체질과 주위의



최영득

건협 전북지부 건강증진지원장

천식유발 인자들이 상호 작용을 일으켜 면역체계에 혼란이 생기면서 천식이 발생하게 된다.

알레르기 질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알레르기 염증 반응에 관련된 요인들을 알아내어 이를 가능한 제거해야 한다. 알레르기 염증반응에 관련된 요인은 환자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어느 특정 요인이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자세한 병력청취와 검사를 통하여 환자에게 문제가 되는 원인을 확인하고 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환경조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환자 모두에서 이들 요인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원인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기에 꼭 필요한 진단 및 치료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작업장 등에서 흡입성으로 특정 요인에 노출이 되어서 기관지 천식이 생긴 경우라면 이에 대한 조기 대처를 통해 호흡곤란

등의 증상발작이 거의 없게 지낼 수 있다. 환절기 꽃가루 등이 원인인 경우에는 많은 환자들이 단순히 감기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고생하게 되는데 이 역시 원인을 확인하게 되면 미리 조치할 수 있다.

천식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원인물질과 악화 요인이 있다. 원인물질은 집먼저 진드기, 꽃가루, 동물 털이나 비듬, 바퀴벌레, 식품, 약물 등이다. 대표적인 악화 요인은 감기, 담배연기와 실내오염, 대기오염, 식품첨가제, 운동 등 신체적 활동, 기후 변화, 화사, 스트레스 등이 있다. 유전적 요인 못지않게 성장하면서 접하게 되는 환경적 요인도 중요하므로 알레르기 병력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에게 천식이 생기지 않도록 환경 관리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천식의 검사와 치료
염증반응과 관련된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시행하는 검사로는 피부

단자검사, 체내 특이항체 측정 그리고 유발시험 등이 있다. 피부단자검사는 그리 어렵지 않고 안전한 검사로서 기관지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에는 흡입성 알레르겐으로 검사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체내에 형성된 알레르겐에 대한 특이항체를 검사하고 이들 결과와 임상양상을 비교하여 환자에게 문제가 되는 원인요인이 어떤 것인지를 분석한다. 유발검사는 기관지 등에 염증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비교하는 비특이 기관지유발검사와 의심이 되는 알레르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 시행하는 특이 알레르겐 유발검사가 있다. 임상양상과 기본 검사에서 특정 원인 물질이 만성적인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특이 알레르겐 유발검사 등으로 원인 알레르겐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약물치료 외에 면역치료를 하기도 한다. 면역치료란 원인이 되는 알레르겐으로부터 노출이 되어도 염증반응이 생기지 않도록 면역학적인 관용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유일한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다.

기관지 천식은 만성적이고 재발이 많은 질환이다. 따라서 증상을 잘 조절하고 폐 기능을 정상화하여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치료 방법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 간에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사설

전북 발전 행보 구체적이어야 한다

전북도의 발전 행보가 구체적이어야 한다. 지역 발전을 방해하는 국내의 다른 지역 무위함들이 마구 존중하고 있는 까닭이다. 저들은 국내 보수 언론들을 통해 가끔 운운분부를 마구 때리더니 이제는 웰스트리트 저널리즘이라는 미국 언론까지 동원해 조롱하고 있다. 참으로 허접스러운 짓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패일수록 전북도는 이를 악물어야 한다. 방어만이 아니라 응전하는 자세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여기 하고 싶은 말이 있다.저번에 전북 지역의 1인당 총소득이 전국 꼴찌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산업구조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요구와 함께 지역 경제의 약화를 염려하는 소리가 쏟아져 나왔는데 말이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한 목표를 보여야겠다. 현안들 중에는 구체적인 작업이 없이 세월만 보낸 것들이 적지 않다. 전북도는 발전 의지를 더욱 힘차게 다져야 한다. 도민의 요구를 정부의 현안으로 끌어올려 반드시 성취시키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나가야 한다. 지금 전북도에 게 뚜렷한 행보를 요구하는 이유

는 분명하다. 무슨 현안이고 추진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지금 지역 발전 사업의 맨 앞장에 있는 새만금만 해도 그렇다. 내부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지만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지못한 답답하다. 그리고 새만금 사업이 도민의 소득과 연결이 되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 데 그게 미미하다. 지역 개발이라는 게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있는데 도민의 바람이 바람으로만 그쳐서는 안되겠다. 전북도는 우리 지역이 웰빙 고장이라고 여러 차례 공표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공표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것이었는지 의문이다. 웰빙 고장이냐 아니냐는 소득이 말을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지금 전북의 현실은 어떤가. 1인당 총소득이 해마다 말아놓고 전국 꼴찌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더욱 분발해야 한다. 전북도의 노력이 소득과 관련해 영향력이 없거나 너무도 미미하다면 그것은 무가치하다. 거듭 말하거나와 전북도는 지역 발전 행보를 구체적으로 힘차게 보여야겠다.

중소기업들의 형편이 또다시 궁핍하다

중소기업들의 형편이 또 다시 궁핍하다. 지역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중소기업들 쪽에서 힘들다고 호소할 때면 불안을 떨칠 수 없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알량한 일자리마저 줄고 있는 판이니 말이다. 그래서 여기 또다시 말하고 싶은 게 있다. 도내 기업들 생존률이 전국 최하위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최근의 형편은 어떤지 알고싶다. 최저 임금제 실시 이후 아파트 경비원이며 마트의 아르바이트생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때이니 말이다. 전북도에게 다시 묻거나와 도내 기업들의 형편이 궁핍하다.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나아지지 않았을 거라는 짐작에도 불구하고 현황을 팩트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그쪽에 힘을 실어서 지역 경제의 성장동력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는 바깥에서 말이다. 전북도는 중심을 잡고 지역 현안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 한다. 도내 기업들의 생존률 통계 보고를 보면 그동안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보냈는지 알 수가 있다. 전북도는 지금 그 무엇보다도 지역 경제를 염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에 보도된 기사를 읽어보니

답답해도 너무 답답하다. 전북도는 뭐하는지 모르겠다.벤처시장 규모가 정부의 벤처 활성화 정책으로 커지고 있다지만 이쪽에서 보자면 판나라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신규투자 규모가 2조 1895억 원인데 도내 투자액은 겨우 212억 원에 지나지 않고 있다. 전국 대비 1%도 채 안 된다는 계산인데 정말이지 이래서는 곤란하다. 전북 지역이 낙후의 대명사처럼 돼버렸지만 이럴 수는 없다.전북도는 지역 경제의 흐름이 어려울수록 어려운 기업들의 형편을 살펴야 한다. 늘 그랬거나와 돈이 풀지 않는 전북 경제는 정체된 상태이다. 전북도는 어려운 기업들과 함께 가야 한다. 우리 전북 경제의 한 뿔은 중소기업들이며 벤처기업들이 계속해서 담당해줘야 하는 까닭이다. 지역 경제를 받쳐주는데 그동안 역할이 컸다는 이야기다. 전북도는 도내의 여러 기업들이 그동안 일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기업들의 생존률이 저조한 것에 생각이 많아야겠다. 제 뿔을 다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힘을 실어줄까 고민하는 가운데 실제로 기업인들을 고무시킬 지원책을 내보야 한다.

독자재언

테러 대비 관심과 주의가 필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병합한 크림반도 동부 항구도시 케르치의 한 기술대학 폭발 사고로 58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위독한 상태의 부상자들이 있어 앞으로 인명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규모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테러는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데 특히 자생적 테러리스트로서 특정 조직이나 이념이 아닌 개인적 반감과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소외 등을 이유로 행동하고 있어 다른 테러에 비해 예측 및 발견이 어려운 편이다. 보스턴 마라톤 사건처럼 미국 이주자가 인종차별 등으로 저지른 자생적 테러나 프랑스 니스 사건처럼 무방비 군중을 대상으로 한 차량돌진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테러 도구의 실용

화 방향으로 정세가 변화하기도 한다. 화창한 가을 날씨에 속에서 전국적으로 지역축제가 봄을 이루고 있는 이때에 자생적 테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인파를 향하여 차량이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화려한 축제가 끔찍한 현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생적 테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미연에 발견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더불어 시민들의 관심과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 자생적 테러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테러 감시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일일 것이다. 김성화군산경찰서 경비계 경위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보우소나루 반대 아다지 지지 리우데자네이루 시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중심가에서 최근 사회자유당의 극우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에 반대하고 노동자당의 좌파 페르난두 아다지 후보를 지지하는 시위가 열렸다. 이날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리아 등 전국 27개 도시에서 이러한 시위가 동시에 벌어졌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Large advertisement for Jeonju Daily featuring a stylized illustration of a sailboat on the sea and the headline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 forum for humans who give courage and hope). The text includes a quote from the editorial board and a call to action for readers to support the newspaper's mission.